

# 금호家 갈등… 이번엔 상표권 소송전

금호산업, 석화에 사용료 260억원 청구

공정위 유권해석 제기 이어… 관계 악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최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이은 소송이어서 두 회사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실질적 자주회사인 금호산업은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인 금호P&B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해, 대응차원에서 맞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갈등의 시초는 2007년부터 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두 기업 모두 '금호'를 상표 등록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양대 지주회사 체제에서 상징성을 고려해 금호석유화학 그룹 상표 공동권리자로 형식상 등록했지만, 양사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금호' 상표권의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09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제간 경영 분쟁이 일어나면서 금호석유화학은 2010년부터 상표권 공동소유를 주

장하며 사용료 지급을 멈췄다. 금호산업은 곧바로 금호석유화학에 지급할 어음금 90억원을 상계처리했다. 이에 금호P&B화학은 지난 5월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소송을 통해 상표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제간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수년째 분쟁을 통해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도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제기나 나서는 등 '형제의 암금'은 쌓여가는 중이다.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남자프로테니스 세계랭킹 2위 라파엘 나달(27·스페인)이 기아자동차 케이나인(K9)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달은 기아차의 세계 홍보 대사로 활약중이다.

(기아차 제공)

## 자동차 정비 바가지 없어지나

제조사, 부품 가격 공개 의무화

車관리법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차 점검이나 정비를 받을 때 가격 정보를 솔직하게 알아보도록 해 정비 비용을 낮추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에 예고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포장단위)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갱신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

산차와 비교하면 수입차는 부품과 공인 가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 정비업소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었다.

수입차 부품은 딜러 업체들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부품 가격은 국산의 5~6배에 이른다.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

외제차 부품은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입자동차 제작사나 수입부품 제작사가 외국에서 시정조치(리콜)가 있었을 때 그 사실을 5일 안에 국토부에 보고하게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무역협회 내달 2일

한·중 FTA 광주설명회

한국무역협회가 오는 10월 2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초 타결된 한·중 FTA 1단계 협상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능수산 분야 협상 결과, 앞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 전략 소개, 지역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중 FTA를 통한 지역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업계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062-943-9400).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국세청 대폭 증원… '숨긴 재산 추적과' 신설

### 관세청도 인력 확충… 세수 확보 세원 발굴 총력

정부가 새 정부 들어 단행한 첫 공무원 증원에 세무당국의 인원을 가장 많이 늘렸다.

29일 관보에 게시된 부처별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 규칙을 개시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정세법무국에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자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 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김현중 국세청

장이 지난해 본청 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정식으로 상설화한 것이다. 이로써 국세청이 악성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징세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은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며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부처 간 막壁을 없애는 '정부 3.0' 업무를 맡게 된다.

신고분석1과는 '개인신고분석과'로, 신고분석2과는 '법인신고분석과'로 이름을 바꿨다.

비상계획담당관의 명칭은 '비상안 전담담당관'으로 변경했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거래 관련 심사 인력 3명, 관세조사 인력 44명, 통관검사 인력 17명을 각각 증원했다. 인천공항세관에 '특수통관과'가 신설되고 관세평가분류원에 있던 '정보분석과'는 관세청 본청으로 이관된다.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 3.0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증원과는 별도로 전체 부처 정원의 1%씩을 줄여 5년 동안 6500명가량을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한다. 올해 연말에는 1042명의 공무원이 줄어들며 이 가운데 국세청은 191명, 관세청은 42명이 해당된다.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금호월드 개점 15주년

내일부터 2주간

경품·할인 사은행사

호남최대의 복합쇼핑몰인 광주 금호월드가 개점 15주년을 맞아 10월 1일부터 2주간 고객 사은행사를 펼친다.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사은품 및 추첨을 통해 양문형 냉장고와 소파, LED TV, 노트북, 디지털 피아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며 매장별로 특별 할인 및 2~3개월 무이자 행사도 진행한다.

지난 1998년 광주 서구 화정동에 개점한 금호월드는 자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전자, 가전, 악기, 인테리어 소품, 컴퓨터, 훈수용품, 가구 등 전문 매장으로 체워졌다.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전남신보재단 '녹색성장 특별보증'

수수료 연 1%…농어업사업자 자금난 해소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은 성장잠재력 있는 농·어업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녹색성장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서 농·어업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는 1억원, 영농어조합법인 및 신자식사농업인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5년 이내에 자유롭게 선택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1% 고정으로 적용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친환경 농·

수·축산업 확대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등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전남신보에서는 30억원을 자체 출연하여 기금을 별도 조성하고, 출연금의 10배인 총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신보 이계연 이사장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고 청정한 농수산 자원을 보유한 전남의 농·어업 산업은 미래 성장의 밑거름인 만큼 이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증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성실납세자 1020명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액 성실납세자 1020명에게 2년간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 때 대기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법무부와 적극협력을 거쳐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장 수상자 526명,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19명,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475명을 이용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 카드를 제시하면 본인 외에도 임직원, 가족 등 동반 2명까지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헬로tv 사은대축제

헬로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b>① 결합상품 맞춤제안</b>	<b>② 헬로tv 미니팩</b>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접속화 서비스를 국내 최저 요금으로!	고객님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원하는 채널만 쑥쑥 골라보세요!
<b>디지털tv</b> 국내 최고 채널을 보유한 N1 디지털 케이블 방송 <b>월 8,000원</b> (VAT 포함 8,800원)	<b>인터넷</b> 국내 최고 기가급 스피드 초광속 인터넷 상품 <b>월 10,500원</b> (VAT 포함 11,550원)
<b>전화</b> 인터넷과 같은 편리한 접속 형태로 편리한 접속 <b>월 2,000원</b> (VAT 포함 2,200원)	

가입문의 1588-3450      www.cjhellevision.com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 KBS1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 성사 시까지...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      훌		재      훌	
男	女	男	女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전문적 회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시법, 행정 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화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파리얼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수동